

유사 석유제품 원료 판매량 감소

석유관리원, 3월 23% 줄어 7만2158kl ... 특별단속 효과 가시화

유사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3월 유사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판매량이 크게 줄고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제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3월 용제 판매량은 7만2158kl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했다. 2월 판매량인 7만361kl보다 1456kl줄어든 것이다.

유사 휘발유 원료인 용제 1호와 유사 경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제 7호·10호 판매량(4만402kl)은 전월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월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83만9189kl), 경유(142만2469kl)는 전월대비 각각 3%, 14% 증가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길거리 유사 휘발유 판매소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대구지역의 3월 석유제품 판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석유관리원이 3월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3>